

과 거 · 미 래



윤활유산업의 연혁과 앞으로의 과제

윤활유는 전체 석유류 제품중에서 소비비중은 2~3%, 시장규모는 연간 약 3,500억원 수준이지만 산업기계의 보전기능과 함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큰몫을 하게 되는 중요한 품목으로서 1일 약 8,800바렐을 사용하고 있다.

윤활유산업은 1960년대초에 태동하였으며, 우리의 토착기술이 아닌 외국의 제품상표(BRAND)와 제휴한 생산형태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윤활유 핵심기술과는 무관한 기유와 첨가제의 배합이라는 단순공정의 업종형태이므로 대소업체가 쉽게 제조업에 참여 할 수 있어 시설과잉과 판매경쟁이 치열한 점이 특징이다.

'89. 하반기부터는 극동정유(주)가 윤활유공업협회에 가입하였고, 경인에너지(주)와 쌍용정유(주)가 제품시장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윤활유업계는 정유 5사 모두가 동참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윤활유산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앞으로 업계가 나아갈 바 몇가지 과제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협회 상근부회장 조 병 용

목 차

I. 윤활유산업의 연혁

1. 전후 복구기
2. 국산화 태동기
3. 대외 합작 성장기
4. 기유산업 육성기
5. 윤활유산업 성숙기

II. 앞으로의 과제

1. 윤활유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촉진
2. 윤활유 기술연구소 설립
3. 윤활유업계의 공존공영 노력

I. 윤활유산업의 연혁

1. 전후 복구기(1950년대)

- 6.25 전쟁과 그 피해 복구시기로서 오늘날의 산업다운 시설은 전혀 없었다.
- KOSCO(한국석유저장주식회사)가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전담하여 배정판매하였다.
- 윤활유는 미군용 윤활유와 폐유재생품이 대중을 이루었다.

2. 국산화 태동기(1960년대)

- 정부의 윤활유 국산화정책으로 규모를 갖춘 제조업체가 최초로 등장하였다.
 - 극동셀정유(주) <현 한국셀석유 전신>
 - 삼양정유공업(주) <현 모빌코리아 전신>
 - 동방정유공업(주) <현 한일윤활유가 인수 개업>
 - 대한정유공업(주) <현 미창석유가 흡수>
 - 해동정유공업(주) <폐업>
 - 미창석유공업(주)
- 윤활유 국산화(조유 수입 생산단계를 거쳐 국산조유를 사용하게 됨)와 제품의 KS 획득 등 품질의 요망수준 도달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
 - 1961년 공업표준화법 공포(9.30)
 - 1962년 국산윤활유 생산개시(수입조유로 저급윤활유)
 - 대한석유공사법 공포(7.24)
 - KOSCO를 인수(주)유공 창립(9.26)
 - 1965년 극동셀정유(주) 윤활유 품목에서 최초로 KS 획득
 - 1968년 극동석유(주) 조유생산 개시(1,085 BPCD)
-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설립(1966년)
 - 윤활유업계의 발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당시 조유수입 추천권을 보유 운영
 - 정부의 단체 통폐합 방침에 따라 1972년 5월 해체.
 - 협회 설립 회원사(5개사)
 - 극동셀정유(주) <조형규>
 - 삼양정유공업(주) <김윤중>
 - 해동정유공업(주) <조성태>
 - 대한정유공업(주) <김행우>
 - 미창석유공업(주) <김낙제>

3. 대외 합작 성장기(1970년대)

- (주)유공과 GULF의 시작으로 외국 브랜드와의 제휴가 급 확산되었다.
 - 1968. 12. (주)유공(GULF, 86.4 ESSO)
 - 1969. 1. 극동셀정유(주) (SHELL)
 - 11. 호남정유(주) (CALTEX)
 - 1973. 6. 모빌코리아윤활유(주) (MOBIL)
 - 1975. 4. 한일정유공업(주) (高潤(株))
 - 7. (주)한국하우톤 (HOUGHTON)
 - 1976. 7. 범우화학공업(주) (YOSHIRO 화학)
 - 1980. 12. 크리버특수윤활유(주) (KLÜBER)
 - 1983. 11. 동남석유공업(주) (PALACE)
 - 1986. 1. 미창석유공업(주) (MITSUBISHI)
 - 4. 이수화학공업(주) (TOTAL)
 - 1989. 5. 경인에너지(주) (B.P)
- 한국유화시험검사소 설립과 변천
 - 국산 및 외국상표 윤활유가 함께 유통되는 여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유사상표, 규격미달품 윤활유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윤활유업계가 전액출연 1969. 4. 10. 한국유류시험검사소를 설립하였다.
 - 생산되는 모든 윤활유의 사전검사를 전담시켜 품질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석유사업법 개정('83. 12)으로 인하여 윤활유 검사업무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 이관되면서 명칭을 한국유화 시험검사소로 변경('84. 3)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기유산업 육성기(1980년대)

- 정부는 수요가 급증하는 윤활기유의 안정공급을 목적으로 1976년부터 윤활기유 국산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81년 초부터 쌍용정유(주)가 시설능력 3,000BPCD를 가동하였고, 1983년 말에는 극동석유(주)가 1,085BPCD 규모의 시설을 가동시켜 국내수요 기유를 공급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설립('82. 6. 19)
 - 발기 회원사(9개사)
 - (주)대한석유공사(현(주)유공) 최 종 현
 - 호남정유(주) 구 평 회
 - 극동셀정유(주)(현 한국셀석유) 송 진 환

- 모빌코리아유허유(주) 박 병 구
- 미창석유공업(주) 최 기 선
- 한일정유공업(주) 김 영 보
- 동남석유공업(주) 노 재 규
- 천미광유공업(주) 유 성 태
- (주)한국하우톤 김 광 순
- 가입 회원사(12개사)
- 1982. 11. 제일유화(주) (서보열)
- 안국석유산업(주) (안상인)
- (주)한미정유 (문필규)
- 도중탈락
- 동아특수화학(주) (전준식)
- 범우화학공업(주) (김명원)
- 1986. 1. 경인에너지(주) (최각규)
- 6. (주)크리버특수유허유(남재현)
- 삼성정유(주) (최천행)
- 7. 임성반도유화(주) (조현준)
- 8. 대성정유(주) (한대선)
- '88년도탈락
- 12. 이수화학공업(주) (배전운)
- 1989. 8. 극동정유(주) (장홍선)
- 한국유허유공업협동조합 설립('88. 1. 18)
- 엔진오일 제조업체 18개사
- 부동액, 그리이스 제조업체 8개사
- 계 26개사
- 정부의 기유산업 육성
- 1981. 1. 1~1989. 6. 30간의 8년 6개월동안 정부의 기유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정책은 강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허유기유 제조업체는 조기에 자립할수 있었고, 쌍용정유(주)가 제품시장에 참여하는등 유허유업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 정부의 기유산업보호정책을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5. 유허유산업 성숙기(1989~)

- 유허유시장경제체제 태동
- 기유산업이 완성되면서 '89하반기부터 유허유기유 수입이 개방되었고, 기유 제조업체가 유허유 제품시장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유허유업계는 본격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표 1)

정 책	내 용
기유 수입관세	25~45%의 긴급관세를 적용 '88말부터 15% 적용중
기유 수입제한	특수용을 제외하고 전면 수입 제한 '88하반기부터 50%, '89 하반기에 전면 개방.
고기유가 유지	국제가격 대비 현저한 고가체제 유지
기유시설 증설 억제	PHISICAL OPTIMUM 논리로 확충제한
기여업체 제품 함유허용	원료메이커로서 유리한 강점 보유

○유허유제조업 형태 정착

기유 제조업체의 유허유업계 참여로 유허유 제조업 형태는 3개업태로 정착되었다.

- ① 석유정제업
- ② 석유정제 및 유허유 겸업
- ③ 유허유전문업

위 기술한 내용은 자료가 빈약하여 확인된 내용만을 취급하였습니다. 발전단계의 시대적 구분이나 명칭도 필자 나름대로 정한 것이므로 누락된 사연, 당시의 특기할 점등 추가할 자료나 고견을 가지고 계신 유허유인께서는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숨은 자료가 널리 발굴되어 종합될때 유허유 산업의 올바른 역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필자)

II. 앞으로의 과제

1. 유허유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촉진

- 국내기유 공급능력 안정화
- 향후 4~5년간 기유수요 증가율이 년평균 10.9%('89상반기 7% 예상), 기유시설 신설 공사기간은 약 3년임을 감안할 때 국제기유 수급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내기유의 적정공급능력을 보유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 기유 수입관세를 개선
- 재무부는 수입관세율의 년차 인하계획에서 유허유 및 기유, 조유의 관세율을 현행 15%에

(표 2) 기유수요 추세

단위: BPCD

구 분	'88 (사용실적)	'89	'90	'91	'92	비 고
고 급	5,234	5,859	6,561	7,349	8,154	년평균 10.9% 증가
조유·기타	2,458	2,601	2,745	2,758	2,781	년평균 2.9% 증가
계	7,692	8,460	9,306	10,107	10,935	평균 8.8% 증가

현공급능력: 70%(고급)

서 1993년도에는 8%로 인하적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유수입을 제한할 당시에 예고된 점을 고려하여

- 기유수입이 개방된 점과
- 기유는 윤활유의 원료이므로 제품과 같은 관세율 적용은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타당한 관세율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윤활유 기술연구소 설립

산업고도화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되는 질적요청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산업분야를 볼때 대기업 그룹차원의 시험연구기관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윤활유분야 전문기술연구소는 전혀 없다. 일본의 경우 윤활유산업의 근대화 일환으로 통상산업성이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여 1971년에 윤활유 중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각 업계의 기술연구를 집약해 온 결과 오늘날 일본의 유일한 윤활유 연구기관으로서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2000년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독자기술이 없어 외국의 “노하우”에 매달리는 일이 없게하기 위하여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이익확신이 조화를 이루어 전문기술연구기관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활유 기술연구소가 설립된다면 연구소의 업무분야를 아래와 같이 부여해야 될 것이다.

- 의뢰시험 연구
- 연구 개발
- 윤활유의 품질, 성능, 시험연구
- 윤활유의 신제품개발, 신기술 개발
- 기술상담, 기술서비스
- 교육, 실습

참고 일본 윤활유 중앙기술연구소(소개)

- 1971. 4. 전국석유공업협동조합 산하기관으로 설립.
- 통산성이 공동연구소 설립보조금과 고도화 자금 전액 지원
- 윤활유 제조업 각사의 기술연구 집약화를 위한 기술센터 역할
- 1989. 4. 일본윤활유협회 부속 연구소로 이관
- * 공약시험연구기관으로서 일본 유일의 윤활유에 관한 중립적 시험, 및 연구기관으로 정착.

3. 윤활유업계의 공존공영 노력

윤활유 제조업은 비교적 단순공정 (기유와 첨가제 배합)이므로 소규모 시설투자비로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어서 중소기업 규모 업체의 참여가 많고 이로 인하여 과잉시설과 판매경쟁속에서 부침이 심한 업종이다. (표 3)

(표 3)

업 체 수			기간(88 1-89.6)		비 고
'88.6	'88. 말	'89. 6	설립	폐업	
73	82	86	19	4	

이러한 기업환경속에서도 꾸준한 기술축적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건실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지만 이들도 오늘의 경쟁체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고도산업과 국제화시대를 맞아 정부는 산업정책 방향을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그분야 전문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기업들도 현재 영위중인 사업중에서 중소기업에 이양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 대폭적인 이양을 서두르고 있음을 보면서 윤활유업계는 어떻게 변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형태는 흔히 계열화를 이루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형식이지만, 최근 노사분규에서 자회사도 모회사의 임금수준을 요구하는 등 취약점이 나타나므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요소는 그 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이며, 대기업은 그 전문성을 사고 중소기업은 전문화의 강점을 활용하는 분업적 협력관계만이 앞으로의 경영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는 기술, 품질, 가격이라 볼때 중소기업의 고도화된 전문성은 대기업이 스스로 찾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대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서 계속적인 투자를 요하는 품종이나 설비투자가 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종을 제외하고는 전문화된 중소기업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가는 것이 코스트다운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볼때,

업계의 공존경영의 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강한 협조체제가 열쇠임을 알수있고, 감히 아래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 ① 신규시설투자를 검토할 때 중소기업 영역은 피하며, 현재 영위중인 중소기업 영역의 수요증가는 시설 확장 대신 임가공을 택한다.
- ② 향후 10년, 즉 2000년대를 본 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현재 영위중인 업종을 검토하여 이양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종은 조기에 임가공 확대를 추진한다.
- ③ 임가공 확대, 즉 대기업, 중소기업의 협력체제는 공존공영의 기본 바탕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해야 한다.